



불교총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신문

총기 49년
2020년 11월 1일
월간 발행

제보 news@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인선(강재훈)

www.chongji.or.kr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4년 제 252 호

추계 강공회 개최, 종령 예하 '소통' 강조

10월 28, 29일 양일 간, 승단총회 등 개최



종령 법공 예하를 비롯 전국 현직 스승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계 강공회가 지난 10월 28일, 29일 양일간 경북 청송에서 개최되었다.

불교총지중 추계 강공회가 지난 10월 28일, 29일 양일간 경북 청송에서 열렸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추계 강공회가 열리지 못함에 따라 지난해 10월 추계 강공 이후 1년 만이다. 종령 예하, 통리원장 인선 정사, 각 교구 교구장을 비롯해 현직 스승 50여명이 참석. 마스크, 거리두기 등 질병관리본부의 방역 지침이 철저히 지켜지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강공회는 해마다 봄, 가을 두 차례 씩 전, 현직 승직자들이 모두 모여 수행을 점검하고, 승단 의사 결정을 하는 등 종단 내 가장 주요행사 중의 하나로 꼽힌다.

외부 행사로 이루어짐에 따라 종조전 참배대례가 생략되고, 오후 2시 소노벨청송 다이아몬드홀에서 개강식 및 종령 예하 강훈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추계 강공에 들어갔다. 종령 예하는 개식사에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표방

하는 우리 종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안타깝게도 소통이 단절된 상태로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다.”며 강공회의 소회를 밝히며, “사원은 소통의 자리요, 소통의 통로다. 우리가 최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스승과 스승, 스승과 교도, 교도와 교도가 늘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코로나와 같은 어떤 재앙이 닥칠지라도 불퇴전의 수행과 교화를 막지 못하도록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대가 요구하는 불교와 우리의 과제’로 교정부장 승원 정사 강의가 이어졌다. 오후 승단 총회에서는 통리원장 인선 정사의 주제로 종단 현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토론과 의견이 교환되었으며, 참석 스승들은 교구별 회의를 마지막으로 1일 차를 마무리했다. 29일 2일 차에서는 오전 공양 후 주왕산 관불 후 강공회를 회향했다.

총지중 승직자 후보 공개모집

10월 28일 승단총회에서 결의, 흥포 박차

종단이 총지신문 광고를 통해 ‘불교총지중 승직자 후보 공개모집’을 시작했다.

지난 10월 28일에 개최된 승단총회에서는 이에 앞서 열린 13일 제 186회 원의회, 127회 재단이사회 연석회의 의결사항을 인준하고, 본격적인 예비 스승 공개 모집을 확정했다.

종단 차원에서 직접 승직자 후보 모집을 공고하고 홍보에 나서는 건 2014년도 이후 두 번째다.

교정부장 승원 정사는 “이번 승직자 후보 공개모집으로 총지중이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임을 홍보하고, 특히 평소 수행과 교화를 원하나 가족 관계로 출가를 결심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그 뜻을 이루실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공개모집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이달부터 총지신문 광고를 시작으로, 점차 교계 언론, 인터넷 배너 광고 등 홍보 분야를 확대해갈 계획이다. 모집 기간은 1차, 내년 2021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총지 교도는 물론 신심이 있는 불자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불교총지중 승직자에게는 생활에 필요한 주거, 교육, 의료 등이 지원되며, 승직 정년 후 연금 혜택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불교총지중 통리원(02-552-1080-3) 또는 전국 불교총지중 사원(연락처 총지신문 11면 하단 불교총지중 법회 안내 및 사원 일람 참조)을 통해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공권직 승직자 정년 70세까지

제153회 정기 총의회서 의결 복지재단 새 이사에 승원 정사

통리원장 등 공권직 승직자의 정년이 70세까지 연장하는 승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총의회(총의회의장: 우인 정사)는 지난 10월 13일 의장 우인정사를 비롯해 총의원 총 16명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리원에서 제 153회 정기 총의회를 열고 통리원장과 총의회의장, 사감원장과 통리원 각 부장 등 공권직 승직자의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는 승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행 승직법 제102조 7항 공권직 승직자의 정년에 따르면 ‘통리원장직은 68세로, 각 부장직은 65세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의결로 ‘통리원장, 총의회의장, 사감원장과 각 부장은 현직 스승에 한하며 70세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개정됐다.

또 총의회의는 공석인 사회복지재단 이사에 현 교정부장 승원정사(벽룡사 주교)를 선임



승원 정사

하고, 총기 50년 4월까지 잔여 임기를 맡겼다. 아울러 총기 49년 추경예산과 50년 예산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총의회에 앞서 원정기념관에서 종령 법공 대종사를 비롯해 이날 회의에 원의회, 재단이사회 임원 및 총의회의원과 서울경인교구 스승 등이 참석하여 선대 열반 스승 합동 추선불사를 봉행했다. <관련기사 2면>

박재원 기자



이사장 인선 정사가 벗고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어린이들과 만나 정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사회복지재단

‘동심은 불심’

불교총지중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인선 정사는 지난 10월 23일 하루 동안 재단 산하 돌봄센터 강남구 세곡 키움센터, 종로구 아동회관어린이집, 강서구 벗고어린이집 세 곳을 방문하고 원장을 비롯한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또 운영 현황과 교육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육 중인 어린이들을 직접 만나 인사했다.

중/조/법/어

일심으로 참회하고 부처님께 귀명하면
몸의 병과 마음의 병 모두 소멸 하느니라

지면안내

5면 남해 정사 이달의 법문
7면 특별인터뷰/이철규 화백

6면 마음공부는 어떻게 해야하는가?<6>
9면 동해중 반야회 첫 법회

불교총지중 승직자 후보 모집 공고

생활과 수행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 총지중의 스승이 되는 길입니다.

정통 밀교, 생활불교 종단 총지중에서
수행과 교화를 이끌어 갈 승직 후보를 모집합니다.

모집기간 _ 1차 2021년 1월 1일~ 2월 28일
대상 _ 총지 교도 및 신심이 있는 불자 누구나
문의 _ 불교총지중 통리원(02-552-1080~3)
또는 전국 불교총지중 사원(총지신문 11면 사원 일람 참조)

불교총지중

선대 열반스승 '왕생성불' 추선불사 봉행

10월 13일 원정기념관서, 서울경인교구 스승 참여



총기 49년 선대 열반스승 추선불사에서 스승들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종조전에 훈향 정공과 헌화중이다. 사진=전서호 기자

총기 49년 선대 열반스승 추선불사가 지난 10월 13일 총지사 원정기념관에서 봉행되었다. 추선불사는 한평생 수행과 교화로 정진하며, 전법과 종단 발전의 밑거름이 된 선대 스승들에 대한 왕생성불을 합동으로 추념하는 행사다.

그동안 추선불사는 매년 추계 강공 때 전국 스승과 사부대중이 모두 참여하는 가운데 봉행되었으나, 코로나 여파로 강공회 일정이 순연되면서, 원의회와 종의회가 열린 날로 일정을 맞추어 이루어졌다. 이날 추선불사에는 종령 범공 예하와 통리

원장 인선 정사를 비롯한 종의원과 서울경인교구 스승 및 일부 교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봉행되었으며, 종조 원정 대성사를 비롯한 총 37명의 열반 스승에 대한 영식왕성성불과 유연영식왕성성불을 추선했다.

예비 스승 집중교육 본격화

내달 둘째주도 본산 총지사서



생에 지은 업은 비교적 다스리기 쉬워서 자기 힘으로도 고칠 수가 있지만, 전생에 지은 업은 지워 버리기가 어려우므로 반드시 신비한 힘을 빌려야 하는 것이다."고 「선가귀감」을 인용하고, "우리나라 고승대덕 중의 몇 분이신 수월스님, 용성스님들도 모두 진언 수행에 정신하셨다."며 진언 염송의 위신력을 설교

하며 진언정진으로 즉신성불의 길을 안내했다.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스승의 사명에 대해 설명하고, 원당 정사는 정통밀교, 육자염송의계에 대해서는 승인 정사가 강의했다. 또 범수연 전수는 종조설법집을 강론하고, 불사범요 집공과 실수에 대해 덕광 정사가 맡아 진행했다. 집중 시무교육은 매달 월초불공 후 둘째 주에 일주일 간 진행된다.

총지종 스승이 되기 위한 집중 시무교육이 지난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역삼동 본산 총지사서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는 종령 예하를 비롯한 통리원장 등 종단 주요 스승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종조 원정 대성사의 입교개종의 참의미와 스승으로서 갖춰 나가야할 마음가짐과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종령 예하는 강훈에서 "진언을 하는 것은, 금

원의회, 재단이사회 연석회의 개최

추가경정 및 내년 예산 원안대로 가결



제 186회 원의회, 127회 재단이사회 연석회의가 지난 10월 13일 통리원 부장실에서 개최되었다. 원의회의 의장 인선 정사를 비롯한 원의원과 재단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추가경정 및 50년 예산을 심의하고 가결했다. 또 승직 연장 근무를 요청하는 승직자 6명에 대해 촉탁연장근무심의를 마

치고 모두 가결했다. 아울러 통리원장과 종의회의장, 사감원장과 통리원 각 부장 등 공권직 승직자의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는 승직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종의회에 넘겼다. 아울러 시무 처우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새 스승 모집 공고를 결의했다.

'총지 50년사' 중간 보고회 개최

창종 50년을 맞이하여 내년 발간을 목표로 준비 중인 '총지 50년사(가칭)'의 제작 중간 보고회가 오는 11월 10일 오후 2시 통리원 반야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발간위원회 위원장인 통리원장 인선 정사를 비롯하여 발간위원, 감수위원, 편집위원 등이 참석하여 실무진으로부터 편찬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또 이날 참여 위원들은 요청되는 편찬 방향과 편집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논의 후 결정하고, 실무진은 이를 실제 사업에 반영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한편 지난 10월 31일까지 마감이었던 종단 사료 공모는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문의: 02-552-1080 홍보실>

부산불교연합회, 2020 '팔관회'

법경, 도우 정사 종단 대표로 참석



부산불교연합회(회장 경선스님)는 신라시대 시작돼 고려시대 국가행사로 치러진 팔관회를 10월24일 금정총림 범어사 선문화교육관 특설 무대에서 봉행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국난극복을 기원하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됐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법경 정사와 도우 정사를 비롯 참가한 승가50명과 재가자 50

명, 사전에 온라인으로 신청한 2,000여명은 호국영령의 왕생극락을 발원하고 지계 실천을 서원했다. 팔관회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호국영령위령제로 시작을 알렸다. 이어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국태민안, 부산발전을 기원하는 호국기원법회로 진행됐다.



인생의 가치를 자각하고 수행에 힘을 주는 불교총지종 「불교총전」

「불교총전」은 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현교(顯敎)와 밀교(密敎), 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모든 경전 가운데서 그내용을 광범위하게 뽑아 불교전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통불교적(通佛敎)인 입장에서 편찬하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양하면서도 체계 있는 불교교과서이고, 불자들에게는 수행의 지표가 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문의 불교총지종 통리원 및 전국 사원 | 전화문의 02)552-1080

종단협, '제주 4·3 희생자 추모 위령제' 봉행

3만여 희생 도민과 스님 16명 극락왕생 발원



종단협 참가자들이 제주4·3 평화공원 위령광장에서 추모위령제를 봉행하고 있다.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 스님, 이하 종단협)가 지난 10월 20일 4·3평화공원 위령광장에서 제주4·3희생자 추모 위령제를 봉행했다.

위령제에는 통리원장 인선 정사를 비롯해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대한불교전태종 총무원장인 문덕 스님 등 한국불교 대표 스님 50여 명과 강승철 제주도 문화체육

대외협력국장, 김희현 제주도의원,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김준보 4·3희생자유족회 상임부회장, 허영선 4·3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한국 불교계를 대표하는 종단협 주최로 처음으로 봉행된 이번 위령제는 4·3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도민들과 스님 16명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또 4·3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

유에 대한 국회의 특별법 개정안 통과도 촉구했다.

종단협 회장 원행 스님은 추모사에서 “70여 년 전 제주는 냉전 시대 이념의 갈퀴가 활빈 폭력으로 3만 명에 달하는 원혼이 검붉은 토양을 덮은 비극의 현장이며 불교계 역시 큰 피해를 보았다”며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불교계 역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제주 4·3 사건은 남북한의 이념 갈등이 발단으로 이승만 정권 이후 미국 정부의 묵인 하에 벌어진 초토화 작전 및 무장대의 학살이다. 이 사건으로 3만여 명의 주민과 37개의 불교사찰, 16명의 스님이 목숨을 잃는 등 지역 사회와 불교계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종단협은 한국불교 중흥과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숙고하는 취지로 제주도 불교와 역사·문화 탐방 및 제주도 근현대사 회고 일정을 지난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25개 종단 대표 및 임원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쳤다. 추모 위령제를 비롯한 모든 행사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격의불교(格義佛敎)

지혜의 눈

중국 전래 초기 도가 사상으로 불교를 설명 불교와 노자, 비실재론적 세계관 서로 닮아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면서 많은 경전이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승려가 중국인 승려의 도움을 받으며 번역한 것을 구역(舊譯)이라고 하고, 중국인 승려가 서역으로 가서 직접 경전을 연구하고 돌아와 번역한 경전을 신역(新譯)이라고 합니다. 전자의 대표적인 승려가 구마라집(鳩摩羅什, 서기 344~413 또는 350~409)이고 후자의 대표적인 승려가 현장(玄奘, 602~664)입니다. 불교가 전래된 초기에는 생소한 불교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 도가(道家)의 용어를 빌려다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불교를 이해하는 것을 격의불교(格義佛敎)라고 합니다. 도가 계통과 불교의 교리 내용이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가능했던 것이지요.

유교는 이성을 중시하는 성향으로 인해 서양의 계몽주의와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가령 reason, rationality의 번역어가 이성(理性)인데 이(理)는 성리학의 이기론에서 말하는 이(理)에 해당합니다. 요즘은 근대 자본주의의 한계에 대한 보완 내지 대안으로 불교와 더불어 노자의 도덕경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자의 도덕경은 우리가 읽어봐야 할 고전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불교신자들에게도 필독서로 인식되고, 도덕경을 통해서 불교에 대한 이해가 보다 깊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덕경의 첫 장에 나오는 도가도 비상도(道可道非常道) 명가명비상명(名可名非常名)의 해석을 놓고 크게 두 개의 주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도를 도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도가 아니다.”라고 번역한 것에 대하여 ‘영원한’에 해당하는 상(常)의 해석에 대해 ‘늘 그러함’이라는 해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대표적인 분이 바로 도율 김용옥 선생입니다. ‘영원’이란 궁극의 불변적인 것을 전제로 한 서구 사상의 영향을 받은 번역이라고 비판하면서 동아시아적 사상에서는 세계의 본질을 변화, 즉 가변(可變)적 세계로 이해하는 것과 서로 충돌한다고 합니다. 서구 사상의 원류인 플라톤의 이데아는 불변

의 진리를 추구하고 이것은 기독교의 교부 철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리스 철학에서 이 세계를 구성하는 것을 물, 불, 흙, 공기의 4원소로 설명하는데 이는 초기의 원자론에 해당합니다.

동아시아 사상에 세계의 본질은 변화로 보고 있습니다. ‘목화도금수’의 오행(五行)은 행(行)이라는 글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변화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4원소설’처럼 불변의 네 원소의 조합으로 이 세상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상생상극(相生相克)의 변화의 산물로 이 세상을 설명합니다. 이는 불교는 무상(無常)과 비슷하지 않은가요? 그래서 ‘도가도 비상도’에서 상(常)은 영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을 전제로 한 ‘늘 그러함’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영원한 도’라는 해석은 근대이후 서양의 영향으로 빚어진 번역이라는 것이 도율 선생의 주장입니다. 영원한 도란 불변적인 것을 말하고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일신입니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도덕경을 서양의 유일신 사상으로 해석하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빛의 성질을 설명할 때 입자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자가 실재론(實在論)에 해당된다면 후자는 비실재론(非實在論)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비실재론적 세계관을 대표하는 사상이라면 노자와 불교가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폐해를 치유하는 사상으로서 노자의 사상이 제시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노자의 사상이 종교로서의 기능을 거의 하지 않고 있기에 현존하는 어떤 기성 종교와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불교는 기성종교로서의 정체성이 강하여 미래사회의 중요한 요소로서 수용되어야 하지만 타 종교의 저항감이 큼니다. 그 대안으로 노자의 도덕경이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불교인들이 노자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칼럼리스트 김태원

주간불교신문사 회장 경우스님 원적



재단법인 대각문화원 설립자이자 주간불교신문사 회장인 고불당 경우 스님이 법랍 92년, 세납 93세로 10월 12일 50분 원적에 들었다. 영결식은 14일 부산 대각사 큰법당에서 엄수됐다.

경우 스님은 1928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났다. 1951년 불교전문강원을 졸업한 스님은 밀양 표충사, 경주 불국사, 해남 대흥사, 서울 조계사 등의 주지 소임, 조계종 총무원장 권한대행을 역임했다. 1985년에는 정계에 입문해 제12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국회 정각회 고문을 지냈다.

한글법화경해설과 불조범어 등 10여 권을 저술했으며, 간디평화상, 슈바이처 인도주의상 등을 수상했고 중국 불교 삼장법사 추대를 받는 등 많은 업적을 이뤘다.

내마음의 등불 네 가지 물음

밀인사 범수연 전수 편

들어난 선과 악의 상벌보다도 보이지 아니하는 화복이 크며
사람이 칭찬하는 명예보다도 진리의 복덕성이 더욱 더 크며
마음이 넓고 크며 둥글고 차면 일체가 광대하고 원만하리라

<종조법설집, 수행편 무상(無相)>



내 마음의 등불'은 스승님들이 평소 마음에 새기고 계신 지혜의 말씀을 릴레이식으로 소개합니다. 밀인사 범수연 전수님은 관성사 정계월 전수님을 지목하셨습니다.

경 동해중학교 53주년 창립기념 축

1967년 11월 27일 개교

교훈
 앞날의 지도자가 되자

후지덕체를
 겸비한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총지종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부산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Tel. 051.555.4456



연명의료 30

Q&A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법상 정사

Q1. 연명의료의 중단 대상은?

A.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제한된다. 임종과정에 있다는 것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했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뜻한다. 말기 환자이거나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연명의료를 중단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Q2.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것은 누가 판단을 하나?

A.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함께 판단한다.

Q3.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의 종류는?

A. 치료효과 없이 임종까지 기간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이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작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이 포함된다.

Q4. 연명의료 중단 후 영양공급과 치료는?

A. 영양, 물, 단순 산소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통증 완화는 계속한다.

Q5. 이미 민간단체를 통해서 작성된 사전의료의향서도 인정되나?

A.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작성자 의사의 추정자료로 인정될 수 있다.

Q6.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한가?

A-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 본인이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가능(+담당의사 확인)하다. 환자의식이 없는 경우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안 된다.

A-2. 환자가 '연명의료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가족 2인(가족이 1인일 때는 1인) 이상이 똑같이 진술하면 이를 환자의 의사로 간주하여 중단 가능(+의사 2인 확인)하다. 물론 다른 가족이 배치되는 진술 또는 증거 제시할 때는 중단이 불가하다. 환자의 '연명의료 반대 의사' 표시가 없으면 가족 전원(+의사 2인 확인)이 합의할 경우에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하다. 미성년 환자면 법정대리인(친권자)이 결정한다.

Q7. 환자가족은 누구까지를 포함하나?

A.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해당된다. 해당하는 가족이 없으면 형제자매가 포함된다. 어떤 경우든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단, 가족이 한 명밖에 없으면 그의 진술만으로 중단이 가능하다.

Q8. 환자가 미성년(19세 미만)인 경우 어떻게 하나?

A. 친권자인 법정 대리인이 연명의료 중단을 밝히면 의사 2인의 확인을 거쳐 중단할 수 있다.

Q9. 사전연명의료의향서(AD)와 연명의료계획서(POLST)는 어떻게 작성 및 등록 하나?

A.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서 평소 직접 작성한다(만 19세 이상).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설명)와 환자(동의)가 작성할 수 있다. 이 서류들은 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며 어디서나 확인이 가능하다.

Q10.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 뜻을 밝혔는데, 가족이 끝까지 진료를 주장하면?

A.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고, 환자의 뜻이 우선한다. 환자가 진료 전반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다.

Q11. 연명의료 중단 시기는?

A. 요건이 확인되면 담당의사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의사가 명확히 확인하고 의료진이 수락하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가족 중에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료진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남는다.



심보이야기 13

법선 정사

제8식 아뢰야식의 모습(2) 자상(自相)·과상(果相)·인상(因相)

과거의 업(業)은 선 또는 악이지만 그 결과로써 생겨난 아뢰야식은 선도 악도 아닌 '무기(無記)'라고 한다. 그래서 제8식의 결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경우에 종자가 현행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의미로 이 심식의 이름에 '이(異)'자가 붙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과거의 동인(動因)은 선이든 악이든 그것에 의해 끌어올려진 현재의 결과, 즉 아뢰야식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닌 '무기'라고 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현재의 자기 존재의 기체는 가치적으로 백지라고 할 수 있다.

숙(熟), 종자 성숙의 현행 과정
왜 이숙=무기 즉, 자기의 기체를 백지로 본 것일까? 이 의문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 속에 숨길 수 없는 종교적 구원이 있다는

것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일정하게 자기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종자가 변화되어서 현행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아뢰야식을 과상으로 해석하여 이숙식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숙은 과거(前世)의 업에 이끌려서 생긴 결과이지만, 이것을 자세히 말하면 업(業)에는 인업(引業)과 만업(滿業)의 두 종류가 있으므로 이들에 의해 생기는 결과에도 두 종류가 있다. 인업은 자기 존재의 기체를 만들어 내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인업에 의한 결과가 아뢰야식이다. 그리고 만업은 그 기체를 살찌우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만업에 의한 결과는 전6식이다.

그림을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인업은 데생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만업은 거기에 색

아뢰야, '종자를 저장하다' 뜻

제8식의 인상(因相)은 제8식이 어떤 원인이 되는 역할을 하는가라는 의미이다. 인상은 원인으로서의 일체종자식(一切種子識)을 말하며, 이 종자는 원인의 역할을 하며, 항상 보존되고 유지되어야만 그 기능을 할 수 있기에 집지식(執持識: Adana)이라 한다.

종자가 어떤 결과를 낳게 할 수 있는 원인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인상이라 한다. 그러므로 제8식은 일체의 종자를 지님으로써 어떤 결과를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원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제8식은 종자를 지님으로써 모든 일의 원인을 제공하는 인상의 모습과 함께 결과적으로는 현행으로 다르게 변화되어서 결과를 유출

업(業)으로 생겨난 아뢰야식, 선도 악도 아닌 '무기(無記)' 인업(引業)은 데생, 만업(滿業)은 거기에 색을 칠하는 이치

것을 읽을 수 있다. 확실히 현재의 자기 존재는 과거의 업의 영향을 받아 그것에 숙박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의 자기를 성립시키고 있는 근원 그 자체는 과거의 업에서 독립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악에서 선으로 변화하여 종교적으로 구제될 수가 있는 것이다.

'숙(熟)'이라는 용어는 '성숙되다', '결과를 낳게 된다.'는 의미이며, 어떠한 결과가 충분히 드러나게 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유식에서는 종자가 성숙되어서 현행으로 드러나는 것을 숙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이므로 과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8식 속에 저장된 종자가 현재의 상황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움직이면서 인식을 결정하고, 자기 행동을 현행하게 되는 과정을 '숙'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異), 종자가 현행으로 다른 결과

이렇게 결과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異)'자가 주는 의미는 종자가 현행으로 다르게 변화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제8식은 이숙의 의미로

말을 칠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이숙 중에서 제8아뢰야식을 진이숙(眞異熟)이라 하고, 그것에서 생겨난 전6식을 이숙생(異熟生)이라고 한다. 물론 전6식 전체가 이숙이라는 것은 아니다. '현행하다', '어리석다', '아름답다', '추하다'고 하는 등의, 말하자면 선천적인 것만을 이숙생으로써의 6식이라고 한다.

이숙의 과상 중에서 결과가 처음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을 전체적인 과보라 하여 총보(總報)라 하고, 이때의 아뢰야식을 진이숙 또는 이숙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총보에 의지하여, 세부적인 의식 활동과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을 별보(別報)라고 하고, 이숙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기에 이숙생이라 한다. 이것은 종자에 의해서 결과가 생기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며, 먼저 총체적인 과보가 크게 정해지고, 이어서 세부적인 종자의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연속적으로 보여 준다. 그러므로 아뢰야식을 이숙식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인 심식에 해당하여 총보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다.

하게 되는 과상의 모습을 함께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의 모습인 과상과 원인의 모습인 인상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제8식의 자상(自相)이다.

제8식 스스로의 모습 즉 전체적인 모습이며, 이것을 우리는 아뢰야식이라 말한다. 왜냐하면 제8식은 주로 종자를 저장하며, 이에 의해서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종자를 저장한다는 의미인 아뢰야의 뜻이 잘 부합되기 때문이다. 과상과 인상의 전체적인 모습인 자상은 원인과 결과의 역할을 충실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자상의 이름인 아뢰야를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제8식을 부르게 된다.

그러므로 제8식의 이름은 일정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점에서 과상으로는 이숙식이라 하고, 일체의 종자가 된다고 해서 원인을 제공하는 인상으로는 일체종자식, 또는 종자를 지닌다는 의미로 집지식이라 하고, 전체적인 입장인 자상에서는 종자를 지녀서 일정한 결과를 내게 되는 아뢰야식이라는 이름을 지니게 된다.

깨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
BBS 불교방송

만공회

월 1만원 이상으로 만공회 공덕주가 되어주세요.
후원문의 1855-3000

2020년 BBS불교방송 만공회 출범 5주년

국내 유일의 불교 지상파이자 중앙 언론사인 BBS불교방송은 공익방송, 정론직필 등 본연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침된 마음을 바로 펴는' 방송사입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열린 마음의 해안을 갖게 하고 세상을 바꾸는 지혜의 힘을 키워주는 방송!

'세상을 맑게하는 글로벌 미디어' BBS불교방송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월 1만원 이상의 후원가족 10만명을 목표로 정진하고 있습니다.

방송포교후원 공덕주를 모십니다.

10만 명이 발심하면 2천만 불자에게 안정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만공회 후원은 한국불교의 미래를 만드는 일입니다. BBS불교방송 포교불사의 주인공이 되어 주세요.





자기 자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소중한 세 가지

우리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행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정치, 철학, 종교도 결국 행복하기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이다.

불교 또한 마찬가지다. 이 우주 모든 생명들이 다 함께 행복해지는 것, 다 함께 행복의 수레를 타고 저 괴안의 세계로 가는 것이 대승불교의 행복이다. 부처님께서 왕자의 지위를 스스로 내려놓고 출가하신 이유도 생로병사 우비고뇌의 괴로움을 해결하여 모든 중생들이 괴로움을 여의고 해탈열반의 궁극적인 행복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톨스토이의 소설 『세 가지 질문』의 내용이다.

“기억하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네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거야. 니콜라이야, 바로 이 세 가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란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야.”

이 세상엔 많은 소중한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세 가지 소중한 것이 있다. 그 세 가지는 ‘자기 자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 자신’이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있기 때문이다. ‘나’라는 존재가 없다면 이 세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다. 나는 우주의 근본이며 출발점이다. 내가 태어남으로 이 세상이 존재하고 또한 내가 죽는 날에 이 우주는 사라지게 된다.

부처님 당시 인도 코살라국의 파세나디 왕과 아내 말라카 왕비는 독실한 불교신자였다. 어느 날 밤, 파세나디 왕은 말라카 왕비와 함께 왕궁에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파세나디 왕은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행복한 기분이 들었다. 파세나디 왕은 말라카 왕비를 그윽하게 바라보며 물었다.

“말라카여! 그대에게 그대 자신보다 더 소

중한 사람이 있는가? 있다면 누구인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파세나디 왕은 말라카 왕비가 ‘왕이시여,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저의 주인이신 당신입니다.’라고 말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그의 예상과 전혀 달랐다.

“대왕이시여! 제게 제 자신보다 소중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다. 파세나디 왕은 처음에는 깜짝 놀랐고 그 다음에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자존심이 유난히 강했던 파세나디 왕은 말라카 왕비를 향해 억지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오, 말라카여! 나 역시 나 자신보다 더 소중한 사람은 없다.”

대답은 했지만 곱씹을수록 가슴 속의 답답함은 오히려 커졌다. 다음 날 파세나디 왕은 기원정사에 계신 부처님을 찾아가 지난 밤 왕비와 나누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렸다. 파세나디 왕의 이야기가 끝나자 부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며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옳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어서 계승을 들려주셨다.

“동서남북 사방에 마음을 다 기울여 돌아다니다 해도 자기 자신보다 소중한 사람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가장 소중하다고 여긴다. 그러므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치면 안 된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파세나디 왕은 그제야 말라카 왕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왕비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님을 확인한 파세나디 왕은 즐거운 마음으로 궁으로 돌아갔다.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듯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또한 소중한 존재들이다. ‘나’라는 존재는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의미가 있다. 김춘수의 시 『꽃』의 내용이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단암사 주교 남혜 정사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로 우주엔 별과 행성들이 가득할 것 같지만 사실 우주의 대부분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이다. 우리가 우주 어딘가로 내뿜게졌을 때, 어떤 별 근처에 떨어질 확률은 0에 가깝다. 확률이라고 부를 수 없는 0이나 마찬가지로 이 숫자는 우리가 지구라는 행성에 태어난 사건의 확률이다.

이 드넓은 우주에서 우리는 무슨 인연으로 부모님을 만나게 되고, 내 남편, 내 아내를 만나게 되었을까? 나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신기하고 경이롭다. 과연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 중에서 부자의 연으로, 부부의 연으로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 밤하늘의 별은 보기에 가까워 보이나 별과 별의 거리는 수만 수천 광년의 거리다. 지금 내 옆에 있는 너와 나의 존재는 수만 수천 광년의 거리와 삼천대천세계의 드넓은 공간, 그리고 영겁의 시간을 뛰어넘어 0이나 마찬가지로 확률로 만난 소중한 인연이다.

부처님께서는 본인을 “여래”라고 지칭하셨다. 여래의 산스크리트어로 “타타가타”이다. 타타가타의 의미는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보시는 분”이라는 뜻이다. “여실지견” 있는 그대로를 알고, 있는 그대로를 본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만 가능한 일이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이며, 행복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말하는 것이 불교의 수행이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불교의 자비이다.

하현주 박사의 마음 밭 가꾸는 이야기 자비정원(慈悲正願)④

우리가 자비라는 이름 아래 행하고 있는 너무도 보편적인 자기중심적 행위들은 타인의 고통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없애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라 하겠다. 어떻게 하면 타인의 고통을 마주했을 때, 이에 압도되지 않으면서도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이롭게 행동할 수 있을까?

타인의 고통, 나의 고통?

다른 생명의 고통스러운 정서를 마주하는 일은 이전 호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서전염이라는 현상을 유발하게 된다. 즉, 타인의 고통을 보는 사람 역시, 그 고통스러운 정서에 노출되며 같은 정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또한 가지 흥미롭고도 중요한 현상이 펼쳐진다. 타인의 공포, 분노, 수치심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들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 정서전염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주의가 집중되는 ‘자기초점주의의 (self-focused attention)’가 활성화된다는 것이다(Wood, Salzberg, & Goldsamt, 1990).

이처럼 인간은 타인의 부정정서에 노출되면, 타인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과몰입 하게 된다. 이는 진화적으로 자신의 내부에서 생존에 위협이 될 만한 신호를 찾기 위한 적응적 가치를 지닌 행위일 것이다. 그러나 타인의 고통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비를 실천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간 번거로운, 극복해야 할 경향성이 아닐 수 없다.

예를 들면, 부부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친구의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는 해고당한 자신의 처지가 더 나쁘다며 자신의 문제에만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것과 같다. 이렇듯 자신에게 주의가 몰입되면, 고통 받는 친구와의 연결은 끊어지고, 자신의 고통에만 빠져들어 스스로의 처지를 비관하는 상태로 빠지기 쉬워진다. 또 다른 경우로는 친구의 고통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한편, 나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고 안도하는 샤펜프로이드(schadenfreud: 타인의 불행에 기뻐하는 감정)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처럼 타인의 고통 앞에서, 자신의 고통으로 빠져드는 자기몰입적 태도와 함께, 나와 너의 고통을 서로 비교하고 견주는 태도도 일어난다. 즉 고통에 대한 평가적·판단적 태도를 말한다.

고통의 실재에 공감해야

요즘 많이 회자하는 ‘나 때는 말이야’라는 태도

고통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

는 상대의 고통은 나 때의 고통에 비하면 하찮고 평가하는 태도이다. ‘이딴 일로 뭐가 힘들지’ 하고 스스로의 고통을 평가절하하는 태도 또한 고통에 대한 판단적 태도이다.

고통을 겪게 되는 각자의 처지는 무수한 인연이 복잡하게 얽혀진 상태인데 그중 하나를 들어 비교한다는 것은 바닷물 가운데 물 한 방울을 두고 비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누구의 고통이 더 큰지를 견주고 겨루면서 자신의 우열을 가늠하려는 태도, 고통 받는 이들을 취약한 존재로 여기고 멸시하는 태도는 우리가 자비를 실천하기에 앞서 극복해야 할 뿌리 깊은 습관이다. 고통은 그 자체로 일어난 현상 그 자체이므로, ‘좋다, 나쁘다, 지나치다, 하찮다’라는 평가를 붙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경험해야 할 대상이자, 비판단적인 태도로 견뎌야 할, 어쩌면 경이롭게 바라보아야 할 삶의 진실한 순간이다.

고통의 감각은 매 순간 달라진다. 어떤 고통은 찌르는 듯한 고통이고, 어떤 고통은 둔탁하게 느껴져 잘 알기 어려운 고통으로 다가온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의 감각으로 경험한다는 것은 ‘고통은 나쁘고 빨리 없애야 한다’는 판단과 관념을 벗어나 고통이라는 실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관념으로서의 고통이 아니라, 고통의 실재 속으로 용감하게 들어가면, 그 고통은 자신의 몸 안에서 그 위용을 발휘하고는 이내 사라진다.

고통은 자기 쇠신의 과정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인 ‘자비체행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중, 자신의 삶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연구 참여자들은 고통을 생각으로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태도를 강조한 바 있다.

고통은 그 과정에서 자기를 쇠신하고, 변혁해가는 과정이다. 고통의 끝에 얻게 될 소중한 보물들을 발견하는 과정이기에, 이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귀한 여정 속에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자기중심적인 동기에 의해 고통을 선불리 없애주려 하거나, 값싼 도움을 주며 자기만족에 빠지는 식으로 타인의 귀한 여정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자비의 실천에 앞서 우리가 나와 타자의 고통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자. 고통을 대하는 태도를 면밀히 제련하지 않으면 서투른 칼질에, 도우려는 이도, 도움 받는 이도 함께 다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다.

불교총지종 불교용품

본존다라니(금색) 13.5x17x3cm	본존다라니(엔틱) 13.5x17x3cm	본존다라니(액자) 14x19x1.5cm	가정본존다라니(대형) 46x27x2.5cm	호신다라니(지갑형) 4.2x5.8cm	보리수 108염주	편백염주 108염주	핀보리수 108염주
₩ 50,000	₩ 40,000	₩ 10,000	₩ 29,000	₩ 3,000	₩ 40,000	₩ 10,000	₩ 40,000

도경스님의 수행법문

마음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6>

경전에서 붓다께서는 문해, 사해, 수해를 말씀하십니다. 문해는 들어서, 읽어서 아는 지혜입니다. 사해는 생각해서 이해한 지혜입니다. 수해는 수행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통찰한 것입니다.

많이 읽고, 많이 듣고, 수행해야

여러분은 많이 읽고 많이 들어야 합니다. 많이 알아야 수행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행의 정보는 여러분의 수행하는 마음에 자연스럽게 작용합니다. 경전의 경우는 어느 것이나 붓다께서 직접 설한 경전을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수행과 관련된 정보는 선택해서 취하여야 합니다. 붓다께서 빠리닙바나(반열반(般涅槃, parinibbana)에 드신 지가 2,500년이 되었습니다. 비구승가가 붓다의 가르침을 빠르게 전승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 여러 가지 오류가 생긴 것은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로 다양한 방법의 수행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상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방법들이 '그 가는 길은 설령 다르더라도 도착점은 같을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스승들은 다양한 방법을 가르치고 계시고 서로 다른 결과를 이야기하십니다.

수행에서 생각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풍토가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7가지 길 가운데 하나가 법에 대한 '조사'입니다. 법과 수행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여야 하고 그 생각을 통해서 사유로써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하여야 합니다. 수행을 시작하면서 수행에 대한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얻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은 스스로 그 정보들을 생각을 통해서 소화시키려 합니다. 수행 초기에 앉거나 걸으면서 마음이 알아서 수행과 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생각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 아는 작용은 어떤 모양, 위치, 크기로 관념화시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이해할 수 있는 실재하는 법, 파라마타(paramattha)입니다. 안다는 것이 이해되면 자주 자주 '아는가?'라고 물으면서 아는 마음을 확인합니다.

마음의 힘이 좋고 균형이 맞아야

'수해'는 두 가지 패턴으로 생겨납니다. 실재하는 법을 계속해서 알아차림 하게 되면 조금씩 마음에 실재하는 법에 대한 이해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생기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상당시간이 지난 뒤에 '내게 이런 이해가 생겼다.'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른 하나의 경우는 마음의 조건이 아주 좋을 때입니다. 좋은 마음의 힘이 아주 좋고 마음의 균형이 맞을 때 한 순간 폭발적인 이해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먹을 쥐고 있으면 느낌의 변화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안다는 것을 계속 알아가게 되면 그런 경우에도 느끼는 마음의 끊임없는 변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싹은 무상하지 않습니다."

새싹이 무상합니까? 새싹은 무상하지 않습니다. 새싹은 관념이고 관념은 불변합니다. 그럼 그 때 무엇이 무상입니까? 새싹이 계속 끊임없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 무상합니다. 흔히들 시간의 경과 안에서 무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무상은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이 아닙니다. 불교의 진리는 오직 실재하는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무상도 이 순간의 무상을 말하고 찰나의 무상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이 순간 인식의 진행과정에서 각각의 역할을 하는 실재하는 작용들이 무상한 것입니다. 눈과 보이는 것의 작용, 귀와 들리는 것의 작용, 느낌과 느낌 아는 것의 작용 등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내 존재가 한 순간도 멈춰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무상'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이런 이해는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는 수행하는 마음의 바른 견해가 됩니다. '무상하다'란 시각으로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림 해 나갑니다. 이렇게 알아차림 해 나가다보면 어느 순간 이러한 일어난 것의 진행에 '나는 그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는구나.'라는 이해가 마음에 분명해집니다. 일어나는 것은 나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자신들의 작용을 스스로 해 나간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조건이 갖추어지면 눈은 보고 귀는 듣고 마음은 생각한다라는 이해가 생깁니다. 이것이 '무아'에 대한 이해입니다.

일어나는 것들이 나의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싫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알아차림이 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알아차림을 하다보면 어느 순간 이러한 일어난 것이 계속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존재가 계속되는 것은 원할 바가 아니다.'란 것을 통찰하게 됩니다.

이것이 '고'에 대한 이해입니다. '고'에 대한 이해가 다른 지혜보다 더 수승한 '지혜'인 것 같습니다. 붓다도 경전 여러 부분에서 '고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가신 쉐우민 사야도께서는 '존재의 고통을 완전히 이해했을 때 진정 마음은 열반을 향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존재에 대한 집착이 있는 우리가 '고'에 대한 지혜를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음호에서는 저의 경우를 통해서 '고'에 대한 이해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는작용'은 어떤 모양, 위치, 크기로 관념화해 설명할 수 없는 것 '나'란 존재가 끊임없이 변화하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붓다 사후 붓다의 가르침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왔고 그 해석에 따른 다양한 수행법들이 행해졌습니다. 지금도 미얀마 등지에 가보면 여러 스승들이 자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그러한 생각을 통해서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에 알고자하는 에너지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직접 수행을 통해서 실재로 이해하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하고자 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약해집니다. 알고자 하는 에너지는 알아차림의 과정에서 새로운 이해가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든다면 화를 지켜보면서 '화가 단지 마음이구나.' 라는 이해가 한 순간 마음에 '확' 알아잡니다. 이런 이해가 생겼을 때 내가 이 지혜의 내용에 대해서 100%안다고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온통 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 순간 마음에 번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난 순간 마음은 전혀 다른 차원의 상태로 바뀌어 집니다. 아주 깨끗하고 밝고 행복한 상태가 됩니다.

'아는가?'라고 물으며 마음을 확인

수행에 대한 바른 정보가 있고 그것을 생각으로 이해하고서 실재하는 몸과 마음의 일어남을 알아차림 해 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해'가 생겨납니다. '수해'를 '통찰지'라고도 부릅니다. '통찰지'는 실재하는 것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바른 견해를 일으키면서 대상을 가볍게 봐 나갑니다.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상으로부터 마음이 조금씩 멀어 집니다.

이렇게 대상으로부터 수행하는 마음이 멀어지면 한 순간 여러 개의 대상을 한꺼번에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대상을 한꺼번에 알 수 있을 때 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는 마음, 실재하는 법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갑니다. 하나의 대상을 알 때도 그 아는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이해가 생깁니다. 고정된 것 같은 벽을 보면서도 그 벽을 바라보고 있는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이해합니다.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마음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무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보는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보이고 있는 대상의 직용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대상을 이해합니다. 손바닥을 서로 문지르면 느낌의 변화가 분명합니다.



불교총지종 그때 그 시절 I



기획 인터뷰/ 이철규 화백

종조님의 숨결을 비단 위에 올리다

“전통 초상화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초상화 속 인품과 교감하며, 그분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면 깊은 감동이 우러나옵니다. 사람들이 진영을 통해 대성사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원정 대성사님의 신성함과 묵직한 울림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종조 원정 대성사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즉신성불의 윤원대도를 얻게 하고 큰 진리를 펴고 계실까?

대성사님의 모습을 오롯이 전통 초상화로 재현 중인 이철규 화백을 지난 10월 23일 전주에 위치한 작업실에서 만났다. 지난 6월 통리원에서 초안 설명회를 가진 이후 처음으로 진행 상황을 들었다.

500년 넘도록 변색이 없도록

이 화백은 그간 작업한 대성사님의 진영을 보여주며 “현재 초안을 바탕으로 스케치를 완성한 뒤 채색하는 과정이며, 전체 작업 중에 중간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전통 초상화는 필선을 살려 명암 없이 선으로만 거리감을 표현하고 인물의 특징을 잡아내야 하기 때문에 서양화와 달리 선이 살아있는 것이 특징입니다.”라고 전했다.

이번 작업은 투명하고 얇은 비단 위에 진한 색을 여러 차례 얇게 칠하여 색을 쌓아 채색하

는 ‘전통 초상화 기법’을 택했다. 채색을 위해서 4번 이상 색을 올린 뒤 아주 맑은 물로 세척하고, 색이 빠지고 나면 다시 색을 여러 번 얇게 칠하여 계속해서 물감을 쌓는 과정을 다섯 차례까지 반복하는 복잡한 과정이 따른다.

이 화백의 말에 따르면 이 방법으로 500년이 넘도록 변색 없이 오랫동안 본래의 색을 유지할 수 있다.

“배채법(背彩法)은 투명한 비단 위에 모든 색을 여러 번 올리고 비단 뒷부분을 채색하여 앞으로 배어 나오게 하는 기법입니다. 현재 보이는 흐린 색깔들이 앞으로는 3~40%는 더 깊고 진하게 올라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캔버스 위에 색을 덧칠하는 서양화 유희에 익숙해져 있어서 낯선 과정으로 여길 수 있으나, 완성본을 만나면 그때야 색의 깊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붓질 하나에도 신중한 손길

이번 작업은 채색을 시작하면 재차 수정이

까다로울 정도로 선 하나, 붓질 하나에도 신중한 손길을 요한다. 배접 과정에서 풀을 사용하기 때문에 선을 뚜렷하게 하는 덧칠은 불가능하나, 색을 바꾸거나 많은 범위를 수정하는 건 불가능하다.

배접을 하기 전에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전체적인 채색에 더욱 신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섬세한 묘사를 위해서 이 화백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고민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듯 보였다.

“철중 어진의 경우 역사적인 고증을 바탕으로 상상력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원정 대성사님의 경우는 외려 사진 속 얼굴이 뚜렷해서, 대성사님의 얼굴에 익숙하신 분들께 좀 더 조심스럽다고나 할까요?”

이 화백은 대성사님의 진영에서 눈의 동공 뒤에 ‘이금(泥金)’을 붙일 예정이라고 했다. 이

금은 초상화에 사용한 천연물감이 수년이 지나면서 특히 눈에 칠한 색이 바래진다는 취약점으로 인해 조선 시대부터 채색 대신 붙이기 시작했으며, 그 후에도 전통 초상화에서 널리 사



10월 23일 전주 작업실에서 이철규 화백이 종조 원정 대성사님의 진영 작업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스케치 완성, 색을 쌓아 채색 ‘전통 초상화 기법’ “대성사님의 신성함과 묵직한 울림이 전해지기를”

용되는 작법이다. 동공에 이금 작업을 한 초상화는 어두운 곳에서도 눈에서 약한 빛을 내보이며, 마치 그림이 살아있는 듯한 효과를 준다.

“전통 초상화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초상화 속 인품과 교감하며, 그분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면 깊은 감동이 우러나옵니다. 사람들이 진영을 통해 대성사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대성사님의 신성함과 묵직한 울림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12월 초 채색 완료 후 배접

종조님의 노란색 범의 문양까지 채색이 들어 가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 바뀔 것으로 보인다. 범의에 새겨진 문양이 복잡하기 때문에 채색에 너무 치중하게 되면 얼굴의 세밀한 묘사가 묻힐 수도 있다.

더불어 흥색 금가사의 대일여래를 나타내는 ‘범’자를 물감으로 칠할지, 자수를 놓아서 표현할지 등 작가로서 조화와 균형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 화백은 마지막으로 “작업이 끝나면 잘 됐다든 평가보다 대성사님 진영을 진경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편안하고, 모두의 근심 걱정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뜻을 전했다.

종조님의 진영 채색 작업의 완료 시기는 11월 말부터 12월 초로 예상된다. 채색이 완료되면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인 배접을 남겨두게 된다. 이 작업 과정 역시 공개될 예정이며, 모든 작업 후 제작 보고서를 통해 어떠한 재료와 채색 기법을 사용했는지도 상세히 기록해둘 계획이다.

이철규 화백은 전라북도 군산 출생의 우석대학교 동양학과 졸업, 홍익대학교 대학원 동양학과 박사로서 현재 예원예술대학교 미술조형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표작으로 2016년 철중 어진 모사와 2017년 정극인 영정, 2018년 신장 상 영정 제작, 그리고 올해 회안대군 유상을 제작한 경력이 있다.

전주=사진, 기사 전서호 기자



불교총지종 그때 그 시절 II

덕화사 헌공불사

총기 35년(2006년) 11월 23일

장소 : 덕화사 서원당
참석인원 : 스승 및 교도 800여명

부산경남교구 가을 음악회

총기 36년(2007년) 11월 16일

내용 : 종조 원정대성사 탄신 100주년 및 창종 35주년을 기념하여 지방사원의 교화 활성화 차원으로 '부산경남교구 및 지회'에서 기념 음악축제 개최
장소 : 동래문화회관

수인사 헌공 및 만다라 봉안 불사

총기 36년(2007년) 10월 11일

장소 : 수인사 서원당
참석인원 : 스승 및 교도 702명

수인사 득락전 가지불사

총기 37년(2008년) 11월 13일

내용 : 득락전 삼존불,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화음사 헌공불사

총기 40년(2011년) 11월 24일

장소 : 화음사 서원당

밀교연재

밀교문화와 생활(46)

중생의 마음과 밀교수행 (21)



법경 정사(정각사 주교/ 철학박사/ 동국대 강사)

수생심(受生心)
수생심(受生心)이란 무엇인가? 『대일경소』에서 이렇게 설하고 있다. ‘모든 존재의 상태에서 그 생(生)의 행업(行業)을 수습(收拾)하는 것을 말한다.’
무슨 뜻인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그다음의 설명을 살펴보자.
‘마치 어떤 사람이 백업(白業)과 흑업(黑業)에 따라 선과 악의 과보를 받는 것처럼 갖가지로 다양하게 짓는 것에 따르기 때문에, 저 무량한 차별의 몸을 받는 것과 같다.’
즉 선을 지으면 선이 따르고, 악을 지으면 악이 따른다는 인과를 말하고 있다. 여기서 백업(白業)은 선업을 말하는 것이고, 흑업(黑業)은 악업(惡業)이다. 선인선과(善因善果) 악인악과(惡因惡果)를 말하고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선인고과(善因善果) 악인고과(惡因惡果)이다. 선한 백업(白業)을 지으면 즐거움[樂]이 따르고, 악한 흑업(黑業)을 지으면 괴로움[苦]이 따르는 것이다. 연기법의 틀립없는 진리이다.
부처님께서 연기법(緣起法)으로써 이를 시설하였고, 사성제를 통해 괴

로움의 소멸을 강조하였으며, 십업설(十業說)으로써 선업(善業)과 백업(白業)의 수행과 실천을 역설하였다.
과보는 업의 필연적 결과이다. 그러므로 업을 잘 지어야 한다. 좋은 인(因)을 짓고 선한 연(緣)을 맺어야 한다. 업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다. 즉 육근(六根)과 오온(五蘊)이 핵심이다.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그 업의 과보가 따른다. 따라서 바깥 경계의 외경(外境)은 그렇게 중요치 않다.
수생심은 바로 그러한 업의 과보를 말하고 있다. 내가 지어서 받는 것을 말하고 있다. 받아서[受] 일어나는[生] 것이다. 그래서 수생(受生)은 즉 연기(緣起)와 같은 말이다. 연하여[緣] 일어나는 것[起]이 곧 받아서[受] 일어나는 것[生]이기 때문이다. 연(緣)이 되었든 수(受)가 되었든 참으로 잘 지어야 한다. 잘 지어야 좋은 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대일경소』에서 이렇게 설하고 있다.
‘지금까지 닦았던 모든 수행을 전부 수생(受生)에 회향하고자 한다. 과를 얻음에도 역시 선과 악을 겸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선과 악을 잘 선택하여 선하지 않은

것을 제거하고, 순수한 백법(白法)을 닦으며, 이 선 가운데에 있어서도 또 다시 혜(慧)로써 거친 광석을 제거하겠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처럼 차례대로 하면, 이에 순일(純一)하고 청정한 제호(靚鬪)의 오묘한 과보를 이룰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다스리는 방법이다.’
위에서 ‘모든 수행을 수생에 회향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인과법을 철저히 따르겠다는 뜻이다. 모든 수행은 인과와 연기법에 기초한다. 수행이 인(因)이요, 과(果)가 해탈 열반이기 때문이다. 수행이 없으면 과가 있을 수 없다. 이는 수행의 인과와 연기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果)에는 선과(善果)와 악과(惡果)가 있으므로, 선과 악을 잘 선택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선하지 않은 것을 제거하고, 순수한 백법(白法)을 닦으며, 이 선(善) 가운데에 있어서도 또다시 혜(慧)로써 거친 광석을 제거하겠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계정혜(戒定慧)의 삼학(三學)을 이야기하고 있다. ‘선하지 않은 것을 제거하는 것’이 곧 계(戒)이다. 계는 제약막작(諸惡莫作)을

가리킨다. 모든 악을 짓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생(受生)의 수행은 계를 지키는 것이 된다. 또 ‘순수한 백법(白法)을 닦는다’고 한다. 이는 부처님의 말씀을 닦는 것이요, 그 닦음은 결국 국정(定)의 이름이다. 순수한 백법으로써 선정에 드는 것이 수행이다. 따라서 수행의 수행은 계를 지키고 선정에 드는 것이다.
또 ‘선(善) 가운데에 있어서도 또다시 혜(慧)로써 거친 광석을 제거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계(戒)와 정(定)으로써 선하지 않은 것을 제거하였다더라도 지혜가 없으면 안 된다. 지혜가 없는 수행은 참다운 수행이 아니다. 지혜라고 할 수 없다. 마치 모래 위의 성과 같은 것이다. 어느 것도 이루어지고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혜가 바탕이 되고 또 끝이 되어야 한다. 지혜의 닦음은 시작이고 종착역이다.
그런데 ‘혜(慧)로써 거친 광석을 제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거친 광석은 악업(惡業)이요, 일체고(一切苦)이며, 무명(無明)이다. 이를 제거함이 지혜의 증득이다. 지혜는 밝은 빛과 같다. 백업(白業)과 선업(善業), 일체락(一切樂), 명(明)을 지니는 것이다. 따라서 수행은 지혜로써 거친 광석을 제거하는 것이다. 악업을 짓지 않고 일체고를 여의는 것이다. 그 길은 지혜를 닦는 것이다. 지혜를 닦는 것이 수생심(受生心)을 잘 다스리는 것이다.

원후심(猿猴心)
원후심(猿猴心)이란 원숭이 마음이냐. 그 마음은 어떤 것인가? 『대일경소』에서 이렇게 설하고 있다.
‘원숭이의 성품은 몸과 마음이 산란하여 언제나 잠시도 머물지 않는다.’ 중생의 산란한 마음을 원숭이에 비유하고 있다. 이러한 비유는 다른 경전에서 예도 보인다.
『열반경』의 내용이다. ‘마음은 경망하고 조금씩 움직이기 때문에 분주하게 달리는 것이 악한 코끼리와 같고, 생각이 빠르기가 번갯불과 같으며, 머물지 않고 요란하게 날뛰는 것이 마치 원숭이와 같으니, 이렇고로 모든 악의 근본이 된다.’고 하였다. 머물지 않고 요란하게 날뛰는 것, 몸과 마음이 산란하여 언제나 잠시도 머물지 않는 것이 원후심(猿猴心)이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이를 원후

심(猿猴心)이라고 하는가? 『대일경소』에서 이렇게 설하고 있다.
‘수행하는 사람도 역시 이렇하다. 그 성품이 성급하게 움직이고 불안하기 때문에 연(緣)에 자주 꼬달린다. 마치 원숭이가 하나의 가지를 놓고 다른 가지를 붙잡는 것과 같다. 대체로 중생은 모두 그러하다.’
성급하고 불안하여 업을 짓고 또 업을 짓는 것이 마치 원숭이가 가지를 잡고 이동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중생의 마음을 원숭이에 빗대어서 원후심이라 한 것이다. 이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소』에서 이렇게 설하고 있다.
‘흠여지는 생각에 따르지 않고 연(緣)을 하나의 경계에 묶으면, 이것이 다스리는 방법이다. 마치 원숭이를 기둥에 묶어놓으면, 다시 방자하게 발돋움하여 뛰어오르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그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다.’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이리저리 흠여지는 마음을 전일하게 다스리는 것이 원숭이의 마음을 다스리는 길이다. 이는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육근(六根)을 잘 다스리는 것이다.

정성준 교수의 밀교 인물史

간다빠와 소성거사

「84성취자전」에는 시대의 성자로서 왕난의 시비에 휩싸였던 간다빠(Ghandhapa)의 기록이 있는데, 이전의 기고에서 약간의 소개를 드린 적이 있다. 간다빠는 나란다대학에서 구족계를 받고 오명(五明)의 정통한 교학과 수행을 마친 분으로 그가 살았던 시기는 유명한 데와팔라(Devapala, 810-850) 왕의 치세기였다. 팔라왕조는 벵갈지역을 중심으로 8세기부터 12세기까지 동인도를 중심으로 크게 번성하였다.
데와팔라왕과 간다빠의 인연은 간다빠가 데와팔라왕의 사리뿌뜨라라는 지역에 살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데서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아무도 간다빠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간다빠는 사리뿌뜨라의 한 곳 나무그늘 아래 초라하게 살고 있었지만, 점차 간다빠의 수행이 저절로 알려져 온 나라가 알게 되었다. 데와팔라왕은 불교를 깊이 신앙했고 사립의 건립과 삼보의 공양 등 수많은 공덕을 쌓았다. 어느 날 데와팔라왕은 왕비와 대화 끝에 간다빠의 소문을 알게 되었고 간다빠를 왕국으로 초청하려고 사신을 보냈으나 거절 당하였다. 데와팔라왕은 수행원과 함께 몸소 방문하여 간하빠로 하여금 다만 1년이라도 왕이 공양할 수 있길 간청하였으나 간하빠는, “국가와 왕은 사

한 것이다”라며 거절하였다. 왕은 6개월을 비롯해 마지막에 단 하루라도 와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 당하였고 더욱 초라한 승려에 대한 공경심은 분노로 변하였다. 왕은 공고문을 내었다. 여기에는 누구라도 간하빠의 계율을 타락시킬 수 있는 자가 있다면 1톤의 황금과 왕국의 절반을 주겠다고 공언하였다.
당시 왕국에는 유명한 퇴기(은퇴한 기생)가 살고 있었는데, 퇴기에게는 아름다운 딸이 있었다. 영리한 퇴기는 왕에게 자신의 딸을 가르쳐 간다빠를 유혹하리라 호언장담하고 딸에게 남자를 유혹할 갖은 기예를 가르치기 시작하

였다. 당시 간다빠는 계율을 지키려 음식공양은 오로지 남자시종들만 허락하였는데, 어느 날 퇴기의 딸은 시종들을 물리치고 몸소 저녁공양을 간다빠에게 올리려 하였다. 간다빠는 평소처럼 공양이 오지 않자 밖으로 나왔다가 기생의 딸을 보게 되었다. 간다빠는 기생의 딸을 보내려 했으나 마침 비가 내렸고 비가 그치지 밤이 되어 어쩔 수 없이 딸과 같이 있게 되었다. 간다빠는 퇴기와 딸과 무려 6생 동안 부부의 연을 맺어온 것을 알게 되었다. 피할 수 없는 업연의 수레바퀴지만 간다빠는 공성을 관하는 네 단계의 절차에 의해 퇴기의 딸은 마지막 생의 연을 맺었고 결국 부부가 되어 1년 후 아들도 생겼다.
왕은 3년간 퇴기에게 진행 상황을 묻곤 하였는데, 3년 후 드디어 간다빠를 파계시켰다는 소식을 퇴기로부터 듣고 사리뿌뜨라의 백성들과 함께 간다빠를 망신시키려 간다빠의 수행처로 몰려가게 되었다. 간다빠는 사태를 짐작하

고 퇴기의 딸과 아들, 물병을 지고 길을 떠났으나 도중에 왕의 무리와 마주치게 되었다. 왕은 간다빠에게 아들과 아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더 이상 청정한 채 가시 떨지 말 것을 말하며 조롱하였으나, 간다빠는 자신에게 잘못된 일이 없다고 답하였다. 왕이 비난을 계속하자 간다빠는 물병과 아들을 땅에 던졌는데 큰 지진이 나면서 물병이 떨어진 자리는 갈라져 물이 솟고 아들은 금강저로 변하였고 물병은 금강령이 되었다. 간다빠는 공중에 솟아 와즈라바라히의 본존으로, 퇴기의 딸은 명비가 되어 금강령과 금강저를 쥔 거룩한 모습으로 변신하였다. 왕은 놀라 마을사람과 함께 절하였으나 땅에서 솟기 시작한 물이 그치지 않아 사람들을 집어삼킬 처지가 되었다. 왕이 잘못을 빌자 간다빠는 진언을 외워 물이 그쳤다. 간다빠는 왕과 사람들에게 밀교의 거룩한 수행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독과 약은 상극이며 작용도 달라 피하기도 하고 먹기도 하지만 성품이 하나라면 차이 같은 것은 없네 성취한 스승은 버리는 것이 없나니 언지 못했으면 힘써 노력해야 하는 것 유정들은 알지못해 윤회에 헤매네
간다빠를 비난하던 왕과 백성들은 스승으로 인정된 후 스승을 좇아 수행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성취를 이루었고, 이때부터 간다빠는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84성취자전」에는 퇴기의 딸과 아들 모두 간다빠의 가르침으로 모든 이원적 분별을 떠난 성취를 이루었다. 한국불교의 교학과 수행, 삶은 소성거사 원효에서 시작된다. 원효의 파계와 요석공주 사이에 설총을 낳은 사연은 난제이다. 세속과 열반의 경계를 넘은 간다빠나 원효의 행적은 시대대 비슷했다. 분명한 것은 이원성을 초월한 단계적 수행이 인도 후기밀교 시대에 완성되었다는 점이다.

수계사 교도

S-OIL 현곡주유소

착한가격!

좋은품질!

정품정량!

대표 최병철

주소 경북 경주시 현곡면 하구리 1242-58

전화 054-745-5804 / 054-745-3083

핸드폰 010-2877-6137



시방정토

자비경(Metta-sutta)

화령 정사 역

선업을 닦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이와 같이 하라

유능하고 정직하고 고결하며,
온화하고 겸손하며 겸손해야 한다.
만족할 줄 알며,
남들이 편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하고
매인 일이 적으며 간소하게 생활하라.
감각을 제어하고, 신중하며,
염치가 있어야 하고 탐욕스러워서는 안 된다.
또한, 지혜 있는 자의 비난을 받을
사소한 잘못도 범해서는 안 된다.

모든 중생을 행복하고 평안하게 하라.
약한 것이든 강한 것이든,
길거나 억세거나 혹은 중간이나
짧거나 작거나 혹은 크거나,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멀리 살거나 가까이 살거나,
태어났거나 태어나려고 하는 것이나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은 빠짐없이
행복하게 하라.

어느 곳에서나 그 누구라도 속이지 말며
멀시하지 말라.
성을 내거나 나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라.
마치 어머니가 하나 뿐인 아들을
목숨을 다하여 위협에서 지키려는 것처럼
모든 중생에게 끝없는 자비심을 베풀도록 하라.

위든 아래든 걸림 없이
모든 곳을 가로 질러
미움도 버리고 원망도 버리고,
끝없는 자비의 마음을 온 세계에 펼치게 하라.

서거나 걷거나 앉거나 눕거나
깨어 있는 한은 이 마음을 지녀라.
그들이 말하는 거룩한 경지가
바로 이것이니라.
잘못된 견해에 빠지지 않고
고결하며 통찰력을 지닌 자는
감각의 욕망에 집착하지 않는다.
참으로 이러한 사람은
다시는 윤회에 들지 않는다.

〈숫타니파타〉 중에서

〈자비경(Metta-sutta)〉은 불교의 가장 초기의 가장 오래된 경전으로 인정되어지는 숫타니파타 중 안에 작은 경전으로 전해진다. 〈숫타니파타(sutta-nipata)〉는 가지각색의 시(詩)와 이야기를 모은 시문집(詩文集)으로, 5장으로 나뉘어 있고 각 장에 여러 개의 경이 수록되어 있다. 숫타니파타 제1장 사품(蛇品, Uraga-Vagga)의 8번째 경전이 바로 〈자비경〉이며, 이를 화령 정사(법천사 주교)가 번역했다.

총/지/문/답 ③

통리원 교정부장
승원 정사

총지종의 호칭

불교총지종은 정통밀교 종단이며 재가종단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출가주의 전통의 종단과는 다른 여러 문화가 있습니다. 호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님과 스승
전통적인 출가주의 불교에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은 사람을 스님이라 통칭하며, 남자 스님은 비구(比丘), 여자 스님은 비구니(比丘尼)라 부릅니다. 총지종의 승직자는 비록 재가하여 세속에 살지만 마음은 세속적인

욕망의 떠남을 추구하는 '심출가(心出家)주의' 종단으로, '스님'을 '스승님'으로 부르며 남자 스승은 '정사(正師)', 여자 스승은 '전수(轉授)라 부릅니다.

신도와 교도
'출가하여 부처님의 법에 따라 수행하는 스님들의 무리'를 승가(僧伽)라 하고, 승가를 믿고 후원하는 사람들을 신도(信徒)라 하는데, 남자 신도는 우바새(거사, 청신남)라 하고 여자 신도는 우바이(보살, 청신녀)라

고 합니다.

총지종에서는 신도(信徒)라 하지 않고, 교도(敎徒)라고 부릅니다. 남자 교도는 각자(覺者)라고 부르며, '깨달은 이의 제자'라는 뜻으로 불자(佛子)와 같은 의미입니다. 여자교도는 보살(菩薩)로 부릅니다.

특이하게도 한국에서는 여자 신도를 통칭 '보살'로 부르는데 원래 보살은 '보리살타; 깨달은 중생'이란 뜻으로 불교에서 부처 다음가는 성인을 이르는 말입니다.



불교와 드라마

결핍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사이코지만 괜찮아〉



트라우마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그는 행운아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장' 보다는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번뇌와 트라우마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굳이 힘들게 살 필요가 있을까, 하고 차라리 행복한 아이로 남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명료하고 아무런 걱정도 없는 아이의 세계에 남아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한 가지뿐입니다. 번뇌와 트라우마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장을 위한 허들 같은 것이라고,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욱 현명한 것입니다.

tvN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는 결핍과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이 깊은 사람도 있고, 밖으로도 좀 달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살펴보면 구별이 무의미합니다. 위장을 하거나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뿐 어느 쪽이나 해결되지 못한 아픔과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누구나 갖고 있을 법한 우리 안의 상처받은 어린이에 관한 얘기를 보여 주었습니다.

주인공인 문강태(김수현)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형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형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가 누군가에게 살해되고, 아버지는 처음부터 부재했고, 그래서 혼자서 독립하기 어려운 형은 자연스럽게 강태의 책임이 됐습니다. 너무나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에게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자폐증이 있는 형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림에서 본 표정하고 비슷하면 이 사람은 지금 행복하구나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형을 위해서 광대처럼 웃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

사실은 형이 버거웠습니다.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형을 짐으로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의 삶에는 기쁨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저 형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만이 존재했습니다. 형이 물에 빠졌을 때 형을 건져주다가 자기도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그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때 죽었으면 이런 거지 같은 삶을 살지 않아도 됐는데 하면서 원망했습니다.

<사이코지만 괜찮아>의 문강태는 늘 웃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고 형에게도 굉장히 헌신적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은 한없이 슬프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그는 자신을 위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태의 위장술은 꽤 치밀했고, 그래서 자신조차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견고한 갑옷을 지적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고문영(서예지)이라는 여자인데 그녀는 강태와 다른 방향으로 자신을

포장했습니다. 강태가 자신의 속마음과 다르게 자신을 포장했다면 고문영은 자신의 속마음을 그대로 밖으로 드러냈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로부터 받은 학대와 불행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평범한 대인관계를 맺기 어려울 정도로 정서가 불안정한 그녀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자신을 꾸몄습니다. 동화속 주인공 처럼 자신을 꾸몄습니다. 이런 모습은 강태와는 또 다른 자기 위장이었습니다. 강태가 평범한 사람처럼 자신을 위장한다면 그녀는 상처받기 쉽고 외로운 자기 속마음을 숨기기 위해서 동화 속 주인공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같은 성향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강태를 알아봤던 것입니다.

이렇게 겉으로 멀쩡해 보이던, 그렇지 않던 사람들은 누구나 상처를 품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나름의 방법으로 아닌 척할 뿐이지요. 그렇지만 위장은 더 큰 고통을 가져올 뿐입니다. 드라마는 그것을 말하고자 하였습니다. 안에 있는 것을 얼른 꺼내놓으라고,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라고 종용했습니다.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더불어 살아갈 때 보다 행복하고 완성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문강태는 고문영의 도움으로 상처가 치유되고, 고문영 또한 문강태를 사랑하면서 자신의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 속 다른 인물들을 봐도 자신의 감감한 성에서 벗어나는 열쇠를 대부분 타인에게서 얻었습니다. 결국 답은 한 가지입니다. 타인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고, 또 타인이 내민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가 김은주



방송포교 불사의 주인공, 붓다회 회원이 되어주세요!!

BTN 붓다회 방송포교 25년

- 코로나19 속에서 찬란한 빛을 발하다 -

만약, 이 시대에 부처님께서 나투신다면 어떻게 전법하실까요?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사람들을 만나면서 법을 전하였지만,
오늘날이라면 방송국 카메라앞에서 법문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방송포교 매체가 BTN불교TV입니다
BTN 붓다회는 방송포교 원력을 후원하는 모임입니다

오늘 방송포교 불사의 주인공, 붓다회 회원이 되어주세요!!

가입문의 1855-0108

BTN 채널안내 | alh 233번 Btv 305번 G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불교총지종과 정각사 교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팔 학생들에 새 교복 선사, 학교장 서한 보내와



네팔 부메학교 학생들이 새 교복을 착용하고 감사의 합장 인사를 올리고 있다.

네팔 안나푸르나 산기슭 수다메 마을의 부메학교 학생들에게 새 교복이 선사됐다. 지난 9월 총지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인선 정사)과 정각사 신정회(회장: 정인숙), 정각사 자비회(회장: 백일숙) 회사금이 학교로 전달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부메학교 테지 샤르마 학교장이 사진과 착복식 초대장을 겸한 감사의 서한을 보내왔다.

서한의 공식 제목은 ‘새 교복 착복식 초대장(Invitation letter for new school uniforms ceremony)’으로 종단과 정각사 교도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진심으로 착복식에 참석하기를 요청하며, 불교총지종과 학교와의 결연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글을 맺고 있다.

금번 지원사업은 네팔에서 아이들 돌봄에 삶을 바치고 있는 김규현 화백이 지난 9월 통리원과 정각사를 방문하여 코로나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네팔 현지의 상황을 알림으로써 시작되었으며, 전달받은 회사금으로 학생들의 유니폼을 마련하고, 착복식이 계획됐다.

한편 코로나19로 아직 한국에 체류 중인 김 화백은 “하늘길이 자주 지연되고 있으나, 후원사업을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어서 총지종 대신 제가 회사금을 학교로 보내면서 교복 착복식을 차례로 진행하고 있다.”며, “종단 관계자들과 정각사 교도들이 같이 참석해야 마땅하지만, 현재까지는 네팔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학교자체로 행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안타깝다.”며 양해의 의사를 전했다.

부산 정각사 구구절 합동 천도제



부산 정각사(주교: 범경 정사)는 음력 9월 9일 구구절을 맞이하여 선망부모와 조상영식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천도제불공을 지난 10월 25일 12시 정각사 특강전에서 봉행했다.

범경 정사 집공으로 1시간 여 진행된 이날 천도제불공에는 교도를 비롯한 이웃 주민 등 40여명이 동참하였으며, 코로나 1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엄

격하게 진행되었다. 구구절은 예부터 양수가 겹친 길일(吉日)이라 하여 나라에서는 국가적인 행사를 벌였고, 1년 중 가장 복이 많이 들어오는 날이라 하여, 그해 추수한 햇곡식과 가을곡과 차를 제불보살님과 선망부모 및 일체인연 영가님들께 공양을 올리며, 감사의 제사와 불공을 드리는 날로 이어져 오고 있다.

‘코로나 극복’ 힐링 콘서트

만다라 합창단 · 부산佛합창단, 11월 8일

정각사 ‘만다라’ 합창단(단장: 이상연)은 11월 8일 일요일 오후 5시에 부회 회 주최하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힐링 콘서트 ‘인연... 그리고 사랑’이 오는 11월 8일 일요일 오후 5시에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열린다.



성운대사가 들려주는 불법의 참된 의미

- 佛法眞義



성운대사 지음/ 조은자 옮김
152x224(신국판) /384쪽
출간일 2020년 8월 20일
도서출판 운주사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불법)에서 벗어나 사탄 길을 걷는 불교인들에 대한 칼날 같은 비판을 담고 있다.

또 이 책은 또 성운대사가 불교리 전반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핵심적인 주제들을 가려 뽑아 엮었다.

불교에 입문하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삼귀의와 오계수지부터 삼법인, 사성제, 십이인연, 사홍서원, 육바라밀 등의 교리들과 중관의 공사상, 유식의 전식득지, 화엄의 유심 등 형이상학적인 사상은 물론 참회, 발원, 염불 등의 수행에 이르기까지, 그

이 책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수행을 강조하고 있는 대만 불교의 성운스님이, 불교의 핵심적인 개념과 교리에 담긴 참뜻, 즉 부처님이 본래 가르치고자 했던 진실된 의미를 일상적인 예화와 알기 쉬운 말로 설명하고 있는 불교 입문서이다.

야말로 대승불교 전체의 이론과 실천 전반을 다 아우르고 있다.

성운대사는 1927년 감소성 강도에 태어났으며, 임제종 48대 전인이

되었다. 1991년 국제불광회를 창설한 뒤, 국제불광회 세계총회장, 세계불교도

우의회 명예회장에 추대되었다.

불교서적 월간베스트(10/1~31)

제공 : 도서출판 운주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적명을 말하다 (선사들이 들려주는 수좌 적명의 삶)	유철주	사유수
2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지식의 크신 사랑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3	요가디파카 (아행가요가1)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행가 / 현천님	선요가
4	제로 : 현실을 창조하는 마음 상태	천시아	젠북
5	회집본 무량수경 : 유쾌하고 풍성한 정토세상	도암님	맑은소리맑은나라
6	우리말로 읽는 부처님 말씀 능엄경	각성님 / 용하님	비움과소통
7	데즈카 오사무의 붓다 : 깨달음 이야기	데즈카오사무 / 정상교	바다
8	티베트 사자의 서 (개정판)	빠드마썸바와 / 중앙님	불광출판사
9	명상수행의 바다 (맛지마니까야 연술로지)	전재성	한국배리장전협회
10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님	정도

총지스케치

누가 이길까?



불교총지종 법회 안내 및 사원 일람

불교총지종 불공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새해불공	매년 1월 첫째 주 7일간
종조탄신일	매년 양력 1월 29일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부처님오신날	매년 음력 4월 8일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5월 28일 ~ 7월 15일
해탈절(우란분절)	매년 양력 7월 15일
종조멸도절	매년 양력 9월 8일
창교절	매년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종 연중 불공

새해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종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 호국인민의 정진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공에 부국강병·국태만안 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제중추'에 의한 진인 '출몰야호사'로써 국민안만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불교총지종 사원 일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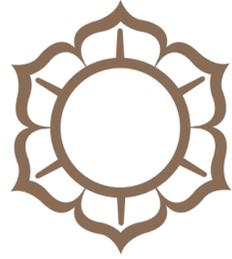
사원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구,경북교구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수련원	28065	충북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359-11	(043)833-8133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02)3452-7485	
서울,경기교구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02)736-095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02)762-1412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031)751-8685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시범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02)983-1492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02)491-6888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십정동)	(032)528-2742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충청,전라교구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백월사	35335	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 1409-1 (도마동)	(042)527-5470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해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향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흥곡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호사동1가)	(063)224-4358	
중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043)833-0399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건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안월동길 6-4	(054)761-2466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 (동부동)	(054)772-8776	
단암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 (삼내동)	(054)333-0526	
선립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054)261-031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다경길36-19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경3길 20-1 (구경동)	(054)746-743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부산,경남교구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단화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4길 15	(055)644-5375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1 (초량동)	(051)468-7164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 (태화동)	(052)244-7760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원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화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5길 4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명정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공모 사료

- 총지종 역사적 가치가 담긴 기록물
- 총지종의 역사를 담고 있는 소장품
- 문서, 사진, 동영상, 책자 등

공모 방법

- 접수 및 문의: 종보실
- Tel: 02-552-1080
- 보낼 곳: 우편 및 이메일
- E-mail: news@chongji.or.kr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불교총지종
50年史 편찬

스승님들과

교도들의 사료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소한 역사가

하나 둘씩 모여,

총지종 50년이

만들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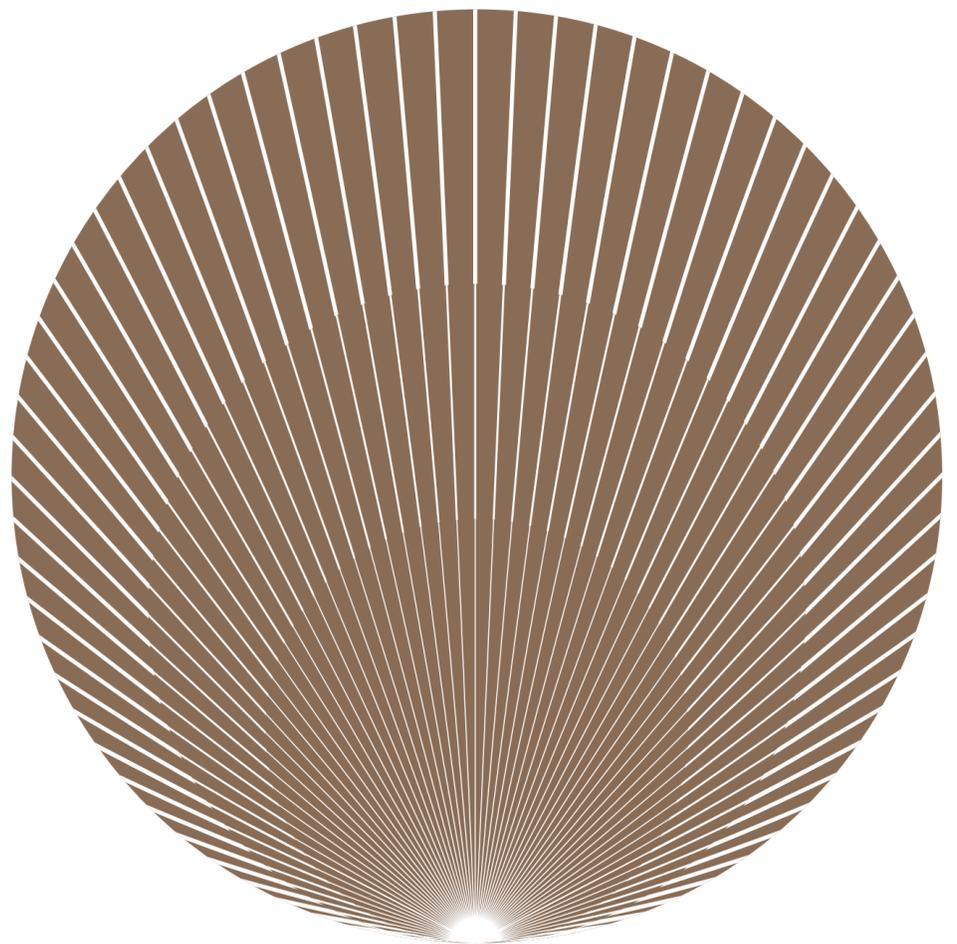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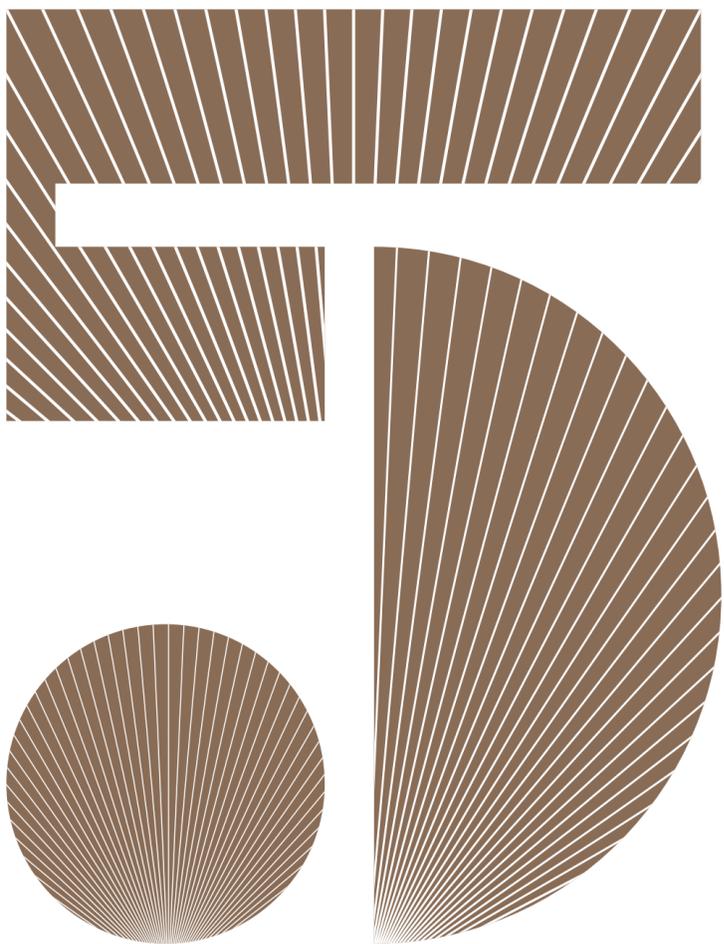
總
心

指
日

총지의 역사를
찾습니다

歷
止

史



마감 일정

2020. 12. 31.